

## 1. 옥한현금 봉헌의 달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2. 2023 상암동교회 정기 회계감사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3. [어르신 사역국] 11월 정규모임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4. 새가족국 [새가족 환영회]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5. 상암동교회 총 권사회 개최안내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6. 연차회의를 위한 각 기관 보고서 제출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7. 2023년 연차회의 관련 회의 공고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8. [차량관리국] 차량봉사자 모집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9. 교우 동정

11월은 옥한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드러진 옥합현금의 전액은 나사렛국제본부(GMC)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 오시는 길



상암동교회는 '전교, 교육, 나눔, 협력'이라는 4대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나사렛교단(Church of the Nazarene)은 모든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며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162개국에 3만여 교회, 260만의 성도가 소속된 복음주의 국제교단입니다.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07:30 2층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09:00 2층 본당
주일 3부 예배	주일오전 10:30 2층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오전 12:00 2층 본당 주일오전 12:30 황동캠퍼스
주일 오후 예배	주일오후 02:30 2층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05:00 2층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06:00 2층 본당



# 예배 시간표

# 주의 목전에서,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38:1-8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교회소식	영상광고	교회소식	영상광고	교회소식	영상광고	교회소식	영상광고
예배의 부름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찬송가 621장						
성격봉독	사도행전 16:11-15						
회중봉헌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봉헌기도	설교자	봉헌기도	설교자	봉헌기도	설교자	봉헌기도	설교자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찬송	마라나타	찬송	마라나타	찬송	마라나타	찬송	마라나타
축도	설교자	축도	설교자	축도	설교자	축도	설교자
폐회송	반주자	폐회송	반주자	폐회송	반주자	폐회송	반주자

신민규 목사는 나사렛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부나사렛대학교(이학사, 문학석사), 미국 나사렛신학대학원(신학석사), 미국 캘리스주립대학교(이학석사, 교육학박사), 미국 에모리대학교(목회상담학 박사)를 졸업했다. 미국 유학 중 캔스اس주에서 정선교회를 개척 담임했고 귀국 후 나사렛대학교에서 10년간 신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프린스턴신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2000년 6월 10일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6대 나사렛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2013년 6월부터 국제총회이사회 부의장으로 국제나사렛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대만나사렛신학대학 총장으로 복직했다. 2019년 3월 제64차 한국총회에서 선출되어 3년 임기의 총회감독과 202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역임하였고, 현재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설교자 | 신민규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53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렸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최고로 성군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강대국 앗수르가 자주 이스라엘을 쳐내려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만 5천명을 다 전멸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무슨 병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죽게 된 병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분명하였습니다. (1)목표는 병 고침이었습니다. (2)목표는 앗수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님만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도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과 연결된 기도제목이라 히스기야 왕은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 최고의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사38:1) "...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을 받아 드릴 것입니다. 의사가 사형선고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형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절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사38: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38:5-6) "...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 오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두 가지 기도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도 눈물 앞에는 약한 분이십니다. '눈물 앞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눈물 앞에 약한 자여!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둘째 큰일을 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큰일을 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사람들 앞에서 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였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렘5: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는 의인 10명을 구하다가 없어서 불에 뒹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한 명만을 찾아도 없었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가 부패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평평 울었습니다. 그 때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울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2:11)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쟁이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눈이 상할 정도로 울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이가 큰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울었고 나가서 전도하면서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였던 믿음의 거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